

“3만 불자공무원의 ‘손발’ 되겠다”

인터뷰 **공불련 회장 김세호** 건교부 차관



김 차관은 이를 위해 공불련 조직 운영을 권역별 중심체제로 완전히 개편할 계획이다. 산하 조직을 서울·경기·부산·경남·대구·경북·대전·충청·광주·전라·제주도 등 총 6개 권역별로 전환해 지부별 실행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또 철도청 불교단체협의회 ‘무사고 기원법회’, 대한민국의 불교의 ‘변사자 천도제’ 등과 같은 기관별 특성을 살린 법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공불련 전 집행부가 추진해온 ‘공불련 사회봉사활동의 날’, ‘지역공무원불교대학’ 설립, ‘미장립 정부부처 기관의 불자회 결성’ 등 급진적 사업을 승계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공불련은 이제 최대 규모의 직장인 연합신행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열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김 차관은 1977년 고려대 정의과를 졸업하는 뒤 2002년 철도청 수송정책실장, 2003년 철도청장 등을 역임하는 등 교통 분야에 진땀을 흘린 정통으로, 지난 1996년 서울 능인원불교대학(21기)에 불교공부를 하면서 불교에 입문했다.

김철우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공불련, 제 2도약 나섰다

3대 회장 김세호 차관·사무총장 송도근 국장 선출

전국 280여 곳의 단위 기관불자회, 3만여 회원을 거느리는 ‘거함’ 직장신행단체 공무원불자연합회가 처음으로 정부직 공무원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제2의 순항’에 나섰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공불련)는 10월 9~10일 김전 직지사서에서 45곳 단위 기관불자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회 3대 회장에 건설교통부 김세호 차관을, 총장급으로 위상이 격상된 중앙사무국 총장에 송도근 건교부 불자회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공불련은 또 회장단에 수석부회장직 신설, 전직 회장단을 포함한 ‘지도자문위원단’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새 집행부는 이번 달 말까지 신임 회장단 인선을 마무리하는 한편, 2005년도 사업계획안을 마련해 다음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을 계획이다.

공불련 신임 집행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순 전 집행부와 연석회의를 갖고 중앙사무국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회장단 인사 추천을 비롯한 연합회 향후 발전 방향, 사업아이템 등을 공불련 홈페이지(www.gongbul.or.kr)에 공시할 예정이다.

지난 2000년 47곳 기관 불자회로 출발한 공불련은 그간 개별적으로 실행활동을 해온 전국의 공무원 불자회를 한데 묶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미장립 기관 불자회원의 개별 가입을 허용하고, 연합회 단위의 합동법회 및 연합수련회도 개설했다.

한편 공불련은 10월 9~10일 김사원, 공경거래위원회, 복지부, 경북도청 불자회 등 45개 단체 6백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주년 기념법회를 산사음악회를 병행했다.

김전 직지사=김철우기자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45곳 단체 6백여 회원들이 10월 9일 김전 직지사 민덕전에서 창립4주년 기념법회를 병행하고 있다. 사진=김철우 기자

생명의 숲에서 불법 배워요

동국대 제1회 산림학교 현장



10월 10일 유령산 자연휴양림 현장교육에 나선 참가자들이 휴양림 운영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다.

“부처님은 룸비니숲 무우수(無憂樹) 나무아래에서 태어나 녹야원의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고 사라숲에서 열반 하셨어요. 경쟁에 지친 중생들이 숲을 통해 불교의 ‘불살생’ ‘방생’ ‘자비’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도록 ‘생명의 숲’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해인사 제정 스님)

동국대는 10월 9~10일, 16~17일 두차례에 걸쳐 산림에 관심 있는 스님,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제1회 산림학교를 개최했다. 한국녹색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매주 토요일 이른 수업과 일요일 현장교육 형태로 3회에 걸쳐 열리고 있다.

10일 수강생들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유령산 자연휴양림(탐장 안구현 · 031585-9643)에서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동국대 산림자원학과 윤희영 오충현 교수들 비롯 해인사 제정 스님 등 산림학교 수강생 15명가량이 동행했다.

제정 스님은 “어렸을 때만 해도 절에서 농작(農畵)이나 산간(山監)은 대단한 소임이었는데 요즘은 이름만 남았을 뿐 실제로 하는 일이 거의 없다. 한국불교의 거대한 자신인 숲에 대한 체계적 관리나 활용방법을 모색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참가자인 윤희구 씨는 양주에서 20여년 넘게 ‘단군농원’이라는 식물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산을 몇 십 정 보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기회에 뭔가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교육에 참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숲속의 집(집선)’이라고 부르는 휴양시설운영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몇몇 참가자들은 통나무집의 구조를 살펴보고 직원에게 시설 이용 방법 등을 묻기도 했다.

현장소장을 맡고 있는 안구현(54) 탐장은 “휴양림에 대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피상적인 인식과는 달리 실제 휴양림의 운영은 이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복잡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와 산림의 보호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민간에서 휴양림을 운영하는 것은 대단한 사명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초기 자금이 많이 들고 이익환수가 더딘 사업에 개인이 선봉리 뛰어드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닐 듯했다.

오충현 교수는 “불교계의 경우 기존 사찰림을 템플스테이 형태의 휴양림 사업에 기존 사찰의 불교관련 포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동국대 산림학교 3회차는 30~31일 열린다. (02)2260-3316 글·사진=조승우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LA에 ‘금오국제선원’ 건립

27일 발족식·후원의 밤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미국 LA 코리아타운 중심에 금오국제선원이 건립된다.

미국 LA 반야사 금오국제선원 건립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현철 스님(반야사 주지·사진은 10월 14일 “코리아타운 서울국제공원 인근에 48평 규모의 금오국제선원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금오국제선원 건립은 3년 전 LA시와 미 프로야구단인 LA 다저스의 후원을 받아 서울국제공원이 만들어지자 여기에 자극을 받은 반야사 신도들이 한국사찰 건립 원력을 세우면서 시작됐다. 1년 전부터는 모금활동에 들어가 현재까지 50

만 달러 정도 후원약정을 받은 상태.

한국에서는 법주사, 불국사, 금강사 등 금오문중을 중심으로 모연활동에 나서고 있다. 금오 스님 손상화 모인 차원에서 지난 7월 현지를 답사한 뒤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건립추진위원회 공동추진위원장도 금오문중인 도영 스님(조계종 포교원장), 종상 스님(경주 불국사 주지), 지명 스님(전 보은 법주사 주지)이 맡았다.

2년여 간의 모연활동 후 2007년부터 본격적인 불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철 스님은 “선불교의 전통을 이은 한국불교를 소개하기 위해 경허·만공 선사들의 법맥을 계승한 금오 스님의 선종으로 국제선원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LA 금오국제선원 건립 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후원의 밤”은 10월 27일 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김윤오 창작 단청문양전’ 성황리 개막

본지 창간 10주년 기념행사로 마련된 ‘김윤오 8만 4천 장작 단청 문양 전시회’가 10월 13일 경인미술관에서 개막 19일까지 열렸다.



본지 창간 10주년을 기념해 열린 창작 단청문양 전시회에는 단초 연화, 금시조 등 100여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조계종 문화부장 성정 스님, 불교방송 이사장 도우 스님, 불교신문 사장 황적 스님, 하와이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 중주청원사암연합회 회장 송봉 스님, 안성 정토사 주지 태봉 스님, 설법연구원 대표 통솔 스님, 원주 민예총 지부장 정영호, 강원무형문화재 제12호 칠장인 김상수씨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개막식에서 본지 감광삼 사장은 “창간 10주년을 기념해 창작단청문양전을 연 것은 10년

여 창작에 매진한 김윤오 화백의 올곧은 예술세계를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한”이라며 이번 전시회가 한국 단청의 독창성이 폭넓게 연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윤오 씨는 이번 전시회가 일반인들에게 단청의 아름다움과 새로운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성정·도우·황적 스님은 “김윤오 씨의 전시가 우리 단청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불교미술을 한단계 발돋움 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이것이 명품이다!
우리 몸속의 새로운 활력 산삼의 신비가 그대로...

심마니 토종오가피는 국내산 토종 오가피 추출액에 산삼배양근을 함유하여 우리의 체질에 알맞게 개발하였으며, 엄격한 품질관리와 검사를 거쳐 정성스럽게 제조한 제품입니다.

산삼배양근 함유

심마니 토종 오가피

- 심마니 토종오가피 출시기념 고객사은행사 -

★심마니 토종오가피 공장 및 농장견학회★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구경도 하시고 선물도 받아주세요. (요목 분양상담)

상담문의/무료자료배송 02)455-1114

주현홍 F&B HYUN PUNG F&B CO., LTD.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 7755

- ◀ 대형 주차장 완비
- ◀ 입장료 무료
- ◀ 점심공양 가능
- ◀ 방생을 배달해 드립니다